※ 'GM 드래프트의 날'은 'sportsdonga.com' 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Culture diary 영화 리뷰

SWOT으로 보는 '양치기들'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영화를 마주할 때가 있다. 완벽하지 않아 생기는 빈틈에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가 담긴 듯한 영화가 그렇다. 2일 개봉하는 '양치기들'(제작 카파필름·사진)이 택한 길이다. 영화는 한때 연극무대에서 주목받던 완주(박종환)가 주인공이다. 역할대행업을 하며 근근이 생계를 잇는 그에게 살인사건의 거짓 목격자가 돼 달라는 의뢰가 날아든다.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그는 경찰을 찾아가 거짓말로 진술을 하지만 사건은 뜻밖의 국면으로 접어든다. 궁지에 몰린 그는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직접 찾아 나선다.

STRENGTH(강점)…예측불가 이야기, 숨은 비밀

'양치기들'은 거짓말과 그 파국의 소용돌이를 그린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는 것이 삶의 이치이자 교훈이지만 영화는 그 거짓말의 굴레에서 스스로 빠져나가려는 주인공을 통해 희미하나마 희망의 빛을 놓지 않는다. 영화는 예상보다 다양한 이야기를 그리지만 전혀 산만하지 않다. 장편영화 연출이 처음인 김진황 감독은 각본을 쓰고 연출과 편집까지 도맡은 '양치기들'을 통해 프로의 세계로 들어선 자신의 존재를 과감하게 알린다. 특히 영화에서 배우들을 활용한 실력은 기성감독 이상이다.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는 일이 감독과 제작진의 끊임없는 숙제라고 한다면 김진황 감독은 자신의 '보는 눈'을 데뷔작에서부터 증명해 보인다. 신인감독과 낯선 배우들의 합심한 에너지가 강렬하다.

WEAKNESS(약점)…대중성 면에서는

극장을 자주 드나들면서 새로운 장르와 이야기를 찾아내 확인하려는 관객에게 '양치기들'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현실의 여러 문제를 적절히 풀어내는 동시에 '환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전한다. 하지만 대중성을 따진다면 '글쎄'. 살인사건이 이야기를 이끄는 주요 매개로 쓰였지만 자극적인 '사건'보다 그를 둘러싸고 베일에 가려진 '사람'의 이면에 더 주목한다. 이야기는 반전을 거듭하지만 파동은 적다. 관객의 감정을 요동치게 하기보다 잔잔하게 흔드는 편이다.

OPPORTUNITY(기회)…화제작의 계보

'양치기들'은 신인감독의 장편 데뷔작, 낯선 배우들의 발견, 사회성 짙은 메시지, 그들이 만든 남자들(혹은 인간)의 세계를 그린다는 사실에서 일찍이 '파수꾼'에서 시작돼 지난해 '소셜포비아'로 이어진 화제작의 계보를 잇는다. 적어도 '파수꾼' 분위기의 영화에 만족했고 기억하는 관객에게 '양치기들'은 반가운 작품이다. 더불어 배우를 발견하는 맛도 상당하다. 주인공 완주 역의 박종환도 그렇지만 살인사건에 얽힌 두 남자를 나눠 맡은 송하준과 윤정일은 향후 1~2년 사이 다양한 영화에서 자주 만날 것 같은 기대감마저 품게 한다.

THREAT(위협)…'딱히' 없지만

'양치기들'은 기존 상업영화와는 제작 과정부터 다르다. 한국영화아카데미가 제작한 저예산 영화다. 같은 시기 개봉하는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등 상업영화와 포지션이 다르다는 의미. 제 갈 길이 확실한 영화라는 뜻이기도 하다. '다행히' 영화의 배급은 극장 체인을 갖춘 CGV아트하우스가 맡았다. 적어도 개봉하자마자 교차상영하거나 상영관을 거의 배정받지 못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 새 영화

●무서운 이야기:화성에서 온 소녀
1일 개봉 | 감독 김곡·김선·백승빈 등 | 주연 박정민·임슬옹·경수진 | 94분 | 15세 관람가

올해 여름 유일한 한국영화 공포 시리즈의 명맥. 공포 장르 실력자들이 다시 모였다. 2012년 시작한 '무서운 이야기' 시리즈의 세 번째 편. 기계가 지배하는 행성에 불시착한 소녀가 인간 세상에 관해 들려주는 세 가지의 무서운 이야기를 옴니버스로 엮었다. 임슬옹이 주연한 '여우골'은 공포영화의 고전 같은 분위기. 길을 잃은 선비가 외딴 마을에 들어선 뒤 겪는 이야기다. 박정민과 경수진의 '로드레이지'는 심야 고속도로에서 벌어지는 추격전을 통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만들어낸 비극을 그린다. 홍은희가 맡은 '기계령'은 인공지능 로봇과 소년의 우정, 그 사이를 가르는 어른들의 비뚤어진 선택이 불러온 파국을 다룬다.

●미 비포 유
1일 개봉 | 감독 테아 샤록 | 주연 에밀리아 클라크, 샘 클라플린 | 110분 | 12세 관람가

시한부 남자와 그 앞에 나타난 여인의 러브스토리. 어쩌면 진부한 이야기이지만, 영화의 원작인 동명 소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젊은 사업가 윌은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환자. 그의 간병을 맡은 루지아는 '망나니'처럼 행동하는 윌을 못마땅해 하지만 남녀의 사랑은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법. 영화는 사랑도, 죽음도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려는 남녀를 비춘다. 눈물보다 웃음이 더 터지는 영화다. 윌 역의 샘 클라플린은 판타지 액션 '헝거게임' 시리즈의 주역으로 현재 할리우드에서 주목받는 청춘스타다. 에밀리아 클라크는 지난해 이병헌도 출연한 '터미네이터 제니시스'에서 젊은 여전사로 활약하며 국내 관객과 만났다.

뉴스디자인 | 유진한 기자 haja1787@donga.com

Biz gallery

제주항공, 3가지 성수기 특전 홍보

애경그룹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은 여름성수기 국제선 운항 증편, 라운지운영, 리프레시 포인트 등 3가지 혜택 프로모션(사진)을 진행한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오키나와와 7월20일 신규 취항하는 삿포로 등 일본노선은 인천과 김포, 부산을 기점으로 하루 15편씩 운항한다. 괌, 사이판, 홍콩도 인천을 기점으로 오전과 오후 각각 하루 2회씩 운항한다. 괌, 사이판, 필리핀 세부에는 자유여행객을 위한 현지 라운지를 운영한다. 멤버십 프로그램 리프레시 포인트는 1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제주항공 홈페이지(www.jejuair.net)와 모바일 웹, 앱을 통해 7~8월 항공권을 예매한 이용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총 111명에게 300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디큐브시티, '쉐라톤 챌린지 2016'

쉐라톤서울 디큐브시티(사진)는 6월 5일 호텔 1층부터 43층 옥상까지 계단을 올라간 뒤, 옥상에서 그룹 별로 크로스핏, 부트캠프 혹은 요가를 경험하는 '쉐라톤 챌린지 2016'를 개최한다.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리복, 센티넬 유니세프가 함께하는 자선기금 행사로 수익금 전액은 세계 어린이를 위한 식수 개선 사업에 기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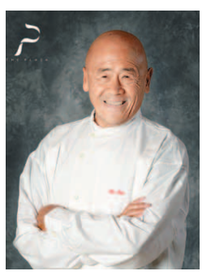
투어익스프레스, 법인고객 혜택 강화

SM C&C 투어익스프레스는 기업법인 고객 대상 혜택을 강화한다. 법인회원은 투익 마일리지 적립, 기업 전담 컨설턴트, 제휴 마케팅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 삼익면세점 1만원 선불카드 및 VIP 카드 발급, 회원등급 업그레이드, 기프티콘 증정, 항공사별 기업요금 할인 및 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SM C&C 투어익스프레스는 비즈니스 클래스 전용 센터, 해외출발 전용 센터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슈퍼푸드 메뉴 선봬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은 '카페 드셰프'에서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연어, 토마토, 브로콜리, 귀리, 아몬드, 단호박 등 대표적인 슈퍼푸드를 이용하여 만든 메뉴(사진)를 점심코스와 저녁 코스로 나누어 제공한다. 점심 코스는 연어 절임과 버섯 샐러드, 코코넛 호박 수프, 버섯과 그린랜틸, 당근 퓨레소스를 곁들인 오리 다리 콩피, 그리고 벌꿀 요거트 빠나코타 등이 제공되며, 저녁 코스 메뉴는 브로콜리 무스와 샐러드, 병아리콩 수프, 고수와 레몬, 펜넬 소스의 연어, 토마토와 병아리콩을 곁들인 페타 치즈와 발사믹소스의 등심 스테이크 등으로 구성했다.

더 플라자, 켄 홍 셰프 초청 갈라디너



호텔 더 플라자는 6월 9일 오후 다큐멘터리 '누들로드' 진행자이자,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 '미'의 오너셰프로 유명한 켄 홍(사진)을 초청 지스텀하우스에서 콜라보레이션 갈라디너를 진행한다. '2016 서울 고메'의 초청 셰프로 한국을 방문하는 켄 홍은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퓨전 요리로 '아시아 퀴진의 황제'라고 불리는 스타 셰프이다. 이번 갈라디너는 켄 홍의 레시피로 구성된 아시안 메뉴를 더 플라자의 셰프들이 재구성하는 콜라보레이션 형식이다. 사천식 만두, 광동식 생선찜, 크리스피 누들 등 총 7코스이며, 각 코스마다 어울리는 와인이 페어링한다.

터키항공, 유로2016 참관 팬 프로모션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이하 유로2016)의 공식 파트너사인 터키항공이 유로2016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축구팬을 위한 프로모션 '밋 유럽스 베스트'(Meet Europe's Best·사진)을 진행한다. 행사 사이트에 해시태그(#EuropesBest.Fans)와 함께 자신의 팀을 응원하는 방법을 SNS에 올려 응모하면 된다. 최고의 팬으로 뽑힌 사람과 동반 1인에게 유로2016 경기 관람권, 항공권과 숙박을 제공한다.